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21. 9. 3.(금) 14:00	배포일시	2021.9. 3.(금) 13:30
담당과장	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 이상규 (044-215-4610)	담당자	박정주 사무관 jjjppp@korea.kr 권은영 사무관 eyk9228@korea.kr

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(TF) 2차 회의 개최 - 향후 30년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「서발법」 국회 통과 호소 -

□ 이덕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'21.9.3.(금) 정부서울청사에서 「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」 2차 회의를 주재하였음

* 참석부처: 기재·과기·산업·문체·해수부, 금융위, 통계청
 유관기관: 산업연구원, 고용정보원

○ 동 TF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'20.1월 발족하여,

- 1기 TF를 통해 코로나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①서비스 업종 지원과 함께 ②산업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*하였음

* 한걸음모델 구축, 해외진출 활성화, 서비스R&D 활성화, 표준화 전략 등 발표, 중장기 視界('21~'25)의 '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' 발표('21.3)

○ 1기 TF를 과제를 모두 마무리한 데 이어, 지난 6월 2기 TF를 새로이 구성하여 핵심과제를 마련·추진 중임

- 우선, 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'한걸음 모델'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신규과제를 선정하였음

※ 「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('21.6월) 주요 내용

■ 상생 조정기구 운영 결과, 3대 우선 적용과제* 모두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

* ①농어촌 빈집 숙박, ②산림관광(하동 알프스 프로젝트), ③도심 내국인 공유숙박

■ 신산업 도입을 위해 향후 추진할 신규과제 2건 선정*

* ①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, ②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
 →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상생조정기구 운영 중

- 또한, 소비모멘텀 제고를 위해 상생형 소비행사인 '대한민국 동행세일'을 개최하여 소비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,

※ 「대한민국 동행세일 추진계획」(21.6월) 주요 내용

- 2,870개 이상의 대·중소업체* 및 17개 쏠지자체가 폭넓게 참여한 상생형 소비행사 개최
 - * (중소기업·소상공인)2,420여개 (대기업·대중소유통업체)300(+α)개 (전통시장)150개 등
-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* 활용 지원으로 新유통트렌드 확산의 계기 마련
 - * 온라인몰, 홈쇼핑, 라이브커머스, T커머스, 배달앱 등

- 新유통트렌드를 반영,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와 수익 창출 지원을 위한 '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'도 마련하였음

※ 「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」(21.8월) 주요 내용

- 전통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참여 유도를 위해 4대 구독경제 모델* 제시·지원
 - * ①밀키트, ②가치소비 모델, ③골목상권 선결제 모델, ④직접 운영 모델
- 구독경제 3대 주요 요소(플랫폼, 물류, 상품큐레이션) 등의 맞춤형 바우처를 신설하여 민간 쇼핑몰 입점, 판매·물류비용, 상품 개발 지원

□ 금일 회의는 서비스 TF 내 7개 작업반이 작업반 회의 및 간담회·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한 추진경과를 살펴보는 한편, 향후 발표할 핵심과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음

○ '기능별 작업반(3개)'에서는 규제개선·R&D·표준화 등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,

* 기능별 작업반: ①총괄·규제혁신반, ②생산성·R&D혁신반, ③인프라조성반
 발표과제(案): 비대면산업 육성 방안,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, 신직업 활성화 등

○ '업종별 작업반(4개)'에서는 각 업종이 직면한 메가트렌드 변화를 감안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

* 업종별 작업반: ①관광·콘텐츠반, ②교통물류반, ③금융혁신반, ④생활밀착형서비스반
 발표과제(案): 콘텐츠 신한류 정책, 디지털물류 실증단지 추진방안,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

- 이역원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변화로 '모든 것을 서비스로 제공'하는 'Everything as a Service(XaaS)' 시대로 진행 중이며,
 - 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경제 확산과 AI·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발달로 더욱 가속화 될 것이므로,
 - 대전환의 시기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혁신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음
- 또한, 주요국은 '경제의 서비스화'* 과정에서 산업 내·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 중인 반면, 우리 서비스 생산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**임을 언급하면서
 - * 경제가 성숙하면서 경제 내 부가가치·고용 구조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
 - ** OECD 33개국 중 28위, OECD 평균 대비 70% 수준(OECD, '18)
- 지난 30년 간 제조업이 우리의 먹거리였다면 향후 30년간의 미래먹거리는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서비스 융복합에 달려있으므로
 - 서비스 혁신을 위해 TF 참여 관계부처 등이 책임감을 인식하고 핵심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- 아울러,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변화·체계적 육성 및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의 정기국회 통과를 재차 호소하였음
- 동 회의에서는 향후 2기 서비스 TF에서 발표할 핵심과제인 '서비스산업 통계 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'과 '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'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
 - 금일 논의된 핵심과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(경제중대본)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임

참 고

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개요

- 부총리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 TF로 설치
- 기본적으로는 '20.1월 발족한 '1기 서비스산업 혁신 TF' 체계 유지
 - 규제·R&D·인프라 등 산업전반의 생산 향상을 위한 **기능별 작업반**과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**업종별 작업반** 병행
 - TF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작업반별 **주관 연구기관** 선정
- 다만, 금융 분야의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전반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일부 작업반 변경
 - 빅데이터·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를 고려하여 핀테크반을 **'금융혁신반'**으로 변경
 - 음식·숙박·도소매 등 국민생활과 밀착된 분야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반을 **'생활밀착형 서비스반'**으로 변경

【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구성】



* **붉은색**은 각 작업반 주관부처

** **보건·바이오** 작업반 관련 사항은 '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'를 통해서 운영